

# ●● 심터의 장

마음의 촛불 \_ 미소

고 사 성 어 \_ 풍마우(風馬牛)

한 권 의 책 \_ 꽃비

영 화 이 야 기 \_ 페인티드 베일

등 산 안 내 \_ 민주지산

골 프 \_ 골프 미들아이언③-2

● 마음의 촛불



미소

서로에게 미소를 보내세요.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에게, 당신의 아이들에게,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세요. 그가 누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소는 당신에게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갖게 해줍니다. <마더 테레사>

<어린왕자>를 쓴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나치 독일에 대항해서 싸운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전투 참가 중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스페인 내란에 참여해 파시스트들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미소>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 썼다.

그는 전투 중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 감방에 갇힌 적이 있었다. 간수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거친 태도로 보아 자신이 처형되리라는 것을 느낀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담배를 찾아 호주머니를 뒤졌다. 다행히 몸수색 때 발견되지 않은 담배 한 개비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냥이 없었다. 그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의 눈과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와 누가 눈을 마주치려고 하겠는가. 그는 간수를 불러서 물었다.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빌려 주겠소?”

간수를 그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의 담배에 불을 붙여 주기 위해 걸어왔다. 간수가 가까이 다가와 성냥을 켜는 순간 무심결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다. 왜 미소를 지었는지는 그도 몰랐다. 어쩌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어색함을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 아무튼 그는 그 상황에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간수는 그의 담배에 불을 붙여 주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고말고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얼른 지갑을 꺼내 허둥지둥 가족사진을 보여 주었다. 간수 역시 자신의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다시는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그것을 간수에게 고백했다. 자식들이 성장해 가는 걸 지켜볼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슬프다고, 그러자 간수의 눈에도 눈물이 어른거렸다.

갑자기 간수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을 열고는 그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소리 없이 감옥을 빠져나가 뒷길로 해서 마을 밖까지 그를 안내했다.

마을 끝에 이르자 간수는 그를 풀어 주었다.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그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이다.

미소는 사람 사이에 꾸밈없고 자연스런 관계를 맺어 준다. 비록 자기 주위에 온갖 보호막을 둘러친 채 살아 가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그 밑바닥 깊은 곳에는 진정한 인간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걸 영혼이라고 부른다.

영혼과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다면 결코 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수 없다. 생텍쥐베리의 <미소>는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기적의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



## 풍마우(風馬牛)

일찍부터 이루어진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는 우리 정신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한 중국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이 뿌리박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식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고사나 숙어, 명언 중에서 가장 함축성 있고 풍자적인 주옥같은 명구들을 소개한다.

**제**나라 환공은 부인 채희(蔡姬)와 같이 연못에 배를 띄우고 놀고 있었다. 부인은 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뱃놀이에 익숙했으므로 배를 흔들며 환공을 희롱했다. 그러자 환공은 해엄을 전혀 칠 줄 몰랐던지 크게 두려워하여 말렸다.

“아서, 아서, 그러지 마오.”

그러나 부인은 점점 더 재미있어 하며 좀체 그치려 하지 않았다. 이 일은 결국 제와 채(蔡)나라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주 혜왕(惠王) 21년, 두 사람의 사랑은 엉뚱하게도 제나라의 채나라 토벌로 나타나 채나라는 별도리 없이 패하고 말았다. 제의 환공은 승리자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발길을 돌려 초나라를 치기로 했다. 그러자 초나라에서는 사자를 보내어 그 토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금은 북해에 있고 나는 남해에 있어, 암내낸 말이나 소도 서로 미치지 못하는 바인데(風馬牛不相及), 그대 내 땅에 오려함은 무슨 연고이뇨?”

이에 대해서 관중(管中)이 대답했다.

“옛날 주의 소강공(召康公)이 우리 선군 태공망(太公望)에게 명하시기를 천하 제후 중에서 죄 있는 자는 이를 토벌하여 주의 왕실을 돕게 하였소. 그런데 이제 초는 공물로서 포모(털가시가 있는 띠)를 바치지 않으므로 왕의 제사에 쓸 술을 거를 때 띠로 재강을 걸러낼 수가 없소. 그러므로 우리는 초의 공물을 구하러 온 것이오. 또 주의 소왕이 남방으로 사냥 나왔을 때 한수(漢水)에서 익사하셨는데, 그 사정도 자세히 알아야겠기에 온 것이오.”

초의 사자는 요령 있게 말했다.

“과연 공물을 바치지 못한 것은 이쪽의 잘못이나, 앞으로 어찌 바치지 않는 일이 있으리오. 다만 소왕이 돌아가신 것은 아무쪼록 물가에서 물어보심이 좋을 것이오.”

이리하여 제군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해 여름, 초나라 대부 굴완(屈完)은 제나라 진영에 와서 화평을 교섭했다. 제나라 군사는 일단 소릉(召陵)까지 물러났다. 그리고 환공은 제후의 병사들을 정렬시키고 굴완과 함께 수레를 타고 열병(閱兵)을 했다. 그리고는 굴완에게 말했다.

“제후의 군사가 이렇게 초에 침입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오. 선군 때의 우호를 이어가기 위해서이니 어떠한가, 우리와 우호를 맺는 것이?”

굴완으로서는 바라던 말이었다.

“우리 초의 임금을 벗으로 삼아 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환공은 이번에는 위협해 보았다.

“이런 대군으로 쳐들어가면 어떤 나라 어떤 성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오.”

굴완도 지지 않았다.

“임금의 은덕에는 따르려니와 무력에 대해서는 초에는 견고한 자연이 있소이다.”

이리하여 굴완은 제나라와 동맹을 맺는데 성공을 했다.

<풍마우>란 암내를 낸 말이나 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없는 일에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

## ● 한편의 책



## 꽃비

영혼이 맑은 한 소년이 꽃의 요정과 나눈 사랑 이야기!

**원**성 스님이 3년간 영국에서 그림 공부를 하며 틈틈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완성한 동화 <꽃비>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환경 동화이면서, 순백한 마음을 지닌 소년과 꽃의 요정이 나눈 사랑 이야기다.

동자승 그림과는 달리 원성 스님이 이번 책을 위해 영국에서 그린 그림들은 신비한 요정들의 세계를 아름다운 색채로 펼쳐내, 마치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본 듯한 충만감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사라져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영혼이 맑은 소년 코코. 영롱한 눈망울과 반짝이는 코를 가진 그는 심장병을 앓고 있어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는 못하지만 그의 맑은 영혼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다. 평범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꽃의 요정, 나무의 요정, 물의 요정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코코는 즐겨 찾는 학교 뒤 정원에서 작고 아름다운 채송화 꽃의 요정을 만난다.



인간이 두들기고, 부수고, 만들고 개발하면서 없어지는 숲과 나무와 꽃들 때문에 요정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요정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코코. 그것을 안 나무의 신들이 그에게 술한 시련과 고난을 주며 시험에 들게 하지만 코코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낸다.

어느 날 코코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요정 왕국의 왕자였지만, 인간을 위해 죽음을 감수하려는 것을 알게 된 채송화 꽃의 요정은, 코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세상이 아름답고 향기로웠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동화는 황순원의 단편 <소나기>와도 같은 순백함과 청초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인간과 요정의 세계를 넘나드는 영국식 판타지가 마치 <해리포터>를 읽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

<저자 : 원성 / 마음의숲(도) / 정가 8,900원>



## 페인티드 베일

1925년 영국 런던, 화려한 사교모임과 댄스파티를 즐기는 도도한 아가씨 키티를 파티에서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차갑고 냉철한 성격의 월터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키티는 자신을 숨 막히게 하는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청혼을 받아들인다.

세균학자인 월터의 연구 일정으로 인해 결혼 후 중국 상해로 넘어간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성격과 다른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행복할 리 만무이다. 결국 활발한 성격의 키티와 매사 너무나 진지하고 조용히 연구와 독서를 즐기는 월터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지고, 키티는 사교모임에서 만난 외교관과 사랑에 빠진다.

아내의 불륜을 눈치 챈 월터는 콜레라가 퍼져있는 오지 산골마을에 자원해서 가고 그곳에 키티를 데려간다. 마치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배신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려는 듯.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콜레라로 인해 마을 사람의 태반이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월터는 키티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연구와 의료봉사에 전념하고 키티는 수감생활과 같은 나날을 보낸다.

무지로 인해 처음에 월터를 배척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 어린 도움과 노력에 차츰 마음을 열고, 남을

위한 일이라고는 한번도 해본 적 없던 키티도 수녀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은 차츰 서로를 향해 열리고 키티와 월터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지만 이내 슬픈 운명이 그들의 행복을 가로 막는다. ☹



● 연극공연



## 갈매기

극은 19세기 말, 모스크바 근교, 소린의 영지에서 일어난다.

### 1막, 소린 영지의 한 정원, 해 질 무렵, 여름

젊은 작가 지망생 꼬스짜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유명한 여배우인 아르까지나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나 어머니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녀가 현재 저명한 작가인 뜨리고린과 열애 중이라 더욱이 심기가 불편한 그는 자신이 만든 새로운 예술 형식의 연극이 어머니의 무시와 의해 엉망으로 끝나자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한편 마샤는 의사선생님에게 꼬스짜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 2막, 크로케 코트가 있는 정원, 나른한 오후, 일주일 후

지루한 농촌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아르까지나에게 관리인이 외출용 말을 내놓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아르까지나는 그곳을 떠나버리겠다고 소리친다. 꼬스짜는 자신이 좋아하는 니나가 뜨리고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눈치 채고 그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듯 죽은 갈매기를 그녀의 발밑에 던진 채 사라져 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한다. 한편, 니나는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뜨리고린과 우연히 마주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에 빠진다.

### 3막, 식당, 정오, 일주일 후

아르까지나와 뜨리고린이 떠나는 날, 꼬스짜는 어머

니와 화해를 시도하나 결국 또 싸우기만 한다. 뜨리고린은 니나와의 아쉬움으로 좀 더 머물 것을 아르까지나에게 제안하나 뜨리고린의 심경을 눈치챈 아르까지나는 현란한 말솜씨로 그를 다시 자신의 품안에 넣는다. 그러나 니나와 뜨리고린은 몰래 모스크바에서 만나기로 밀약한다.

### 4막, 구조가 바뀐 응접실, 늦가을 밤, 2년 후

꼬스짜는 유명작가가 되었고, 뜨리고린과의 사랑에 실패한 니나가 거의 폐인이 되었다는 소문만 무성히 들린다. 뜨리고린은 다시 아르까지나의 애인으로서 관계를 유지하며 니나라는 존재에 대해선 이미 기억을 지운지 오래이다. 고향에 우연히 들르게 된 니나는 꼬스짜의 집에 살짝 찾아 들어가 꼬스짜를 만나지만 다른 방에서 들리는 전 남편 뜨리고린의 아련한 목소리에만 관심을 가진 채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꼬스짜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 버린다. 꼬스짜는 권총을 들어 자살한다. ☹

#### ■ 공연안내

△공연장소 : LG아트센터

△공연일자 : 2007년 3월 15일 ~ 2007년 3월 25일

△공연일시 : 화, 목, 금요일 19:30 / 수, 토요일 15:00.

19:00 / 일요일 14:00. 18:30 <월 쉼>

△문의: LG아트센터 02-2005-0114



## 민주지산

**민**주지산은 충청, 전라, 경상, 삼도를 가르는 삼도봉을 거느린 명산으로 옛 삼국시대는 신라와 백제가 접경을 이루었던 산이기도 하다. 북쪽으로는 국내 최대 원시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물한계곡이 이어져 있다. 옛부터 용소, 옥소, 의용골폭포, 음주골폭포 등이 있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경북 쪽으로는 김천시 황악산 기슭의 직지사, 동남쪽으로는 석기봉과, 태종 삼도봉이 있다.

민주지산은 진달래 명산으로 진달래가 북으로 각호산, 남동쪽으로 석기봉과 삼도봉으로 이어지며 8 km의 주능선을 그리고 있다. 석기봉과 삼도봉을 잇는 능선은 산죽과 진달래길이다. 다른 산의 진달래가 무리지어 군락을 이루는데 반해 이곳 진달래는 능선을 따라 도열해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행기점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용화면 조동리,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등 4곳에서 시작된다. 영동 쪽의 산세가 완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행기점을 물한리로 잡는다. 물한리에서는 민주지산, 각호봉, 석기봉, 삼도봉을 모두 오를 수 있다.

민주지산만 오르기에는 단조로워 민주지산→석기봉, 민주지산→석기봉→삼도봉, 각호산→민주지산→석기봉을 종주하면 좋다. 특히 쪽새골→민주지산→석기봉→삼도봉 코스가 가장 무난하다.

쪽새골은 등산로가 다소 가파르고, 삼도봉에서 하산하는 길이 완만하고 등산로가 좋아 하산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낙엽송 숲 입구 삼거리가 있고 낙엽송 숲을 조금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길이 넓은 두 번째 삼거리가 있다. 첫 번째 삼거리에는 간이화장실이 있으며 안내 표지판이 없어 망설이게 되는데 첫 번째 삼거리나 두 번째 삼거리 어느 곳에서 올라도 등산로가 합쳐진다. 첫 번째 삼거리로 오르는 것이 편하다.

쪽새골 방면은 등산로가 넓지만 온통 돌밭이며 다소 가파르다. 넓은 등산로가 끝나는 지점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서야 쪽새골로 오른다. 직진하면 민주지산에 떨어진 거의 각호산이 가까운 능선으로 올라서게 되며 이 능선에 올라서면 안내 표지판이 없어 어느 쪽으로 가야 민주지산으로 가는지 혼란스럽다. 이곳으로 올랐을 때는 왼쪽 능선으로 30여분을 가야 민주지산이다.

갈림길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서면 쪽새골을 거쳐 안내표지판이 있는 주능선 삼거리에 이른다. 이곳에서 안내표지판을 따라 오른쪽으로 10여분 가면 민주지산 정상이다. 정상에서 다시 되내려와 석기봉, 삼도봉에 이른다.

시간에 따라 각기봉을 지나 물한계곡으로 하산할 수 있으나 삼도봉까지 가서 물한계곡으로 하산하는 것이 등산로가 완만하고 길이 좋아 하산하기가 수월하다.

주차장에서 민주지산 1시간 30분, 민주지산에서 석기봉 1시간 30분, 석기봉에서 삼도봉 30분, 삼도봉에서 물한계곡 주차장까지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

● 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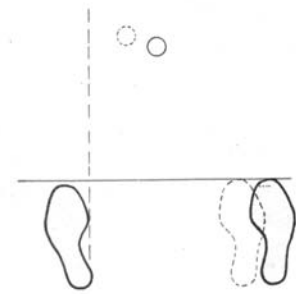


## 중심(重心)의 밸런스가 만드는 적정한 스윙

### 볼의 위치가 높아지면 왼쪽을 향하는 페이스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 볼을 치면 예외 없이 볼은 왼쪽으로 굽어간다. 볼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페이스가 왼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면에서 자세를 취하면 클럽 페이스의 에지를 목표에 똑바로 향하더라도, 로프트의 크기에 비례해서 페이스는 왼쪽을 향하게 된다. 이것은 볼의 높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타점이 높아질수록 페이스는 왼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는 왼쪽으로 굽는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볼의 위치는 약간 안쪽이 좋다.

발꿈치에 걸린 중심(重心)을 발끝 방향으로 분산시켜, 무릎에 여유를 갖게 한다.

### 짧게 잡고 업 라이트한 스윙

볼과의 거리도 페이스의 방향과 크게 관계가 있다. 볼에서 떨어져 자세를 취할수록 페이스는 왼쪽을 향한다. 높은 위치의 볼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윙이 플랫폼하게 되기 때문이다.

볼이 왼쪽으로 굽지 않게 치려면 업 라이트한 스윙을 해야 한다. 볼에 다가가서 클럽을 짧게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볼에 접근한 만큼 볼을 낮은 각도로 내려다볼 수 있어 플랫폼한 스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볼의 위치는 스탠스의 안쪽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는 볼을 왼쪽으로 튕겨 보내기 쉽다. 평지에서 치는 위치보다 볼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 안쪽에 놓고 친다. 볼을 안쪽에 놓으면 손이 선행하여, 클럽 헤드가 조금 뒤늦게 볼에 맞게 된다.

그만큼 왼쪽으로 튕기는 확률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볼은 바깥쪽에 놓을수록 튕기기 쉽게 된다. 헤드가 잡혀지기 때문이다.



넓게 안정된 스탠스를

스탠스는 좀 넓게 잡아 주는게 좋다. 사면에 서면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 법이다. 발끝이 내려가는 경우만은 무릎을 굽힌 채 하반신을 고정시키는데, 그 밖의 경사에서는 무릎의 밀어보내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스탠스를 좁게 잡고 무릎을 쓰면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

무릎 밀어보내기가 포인트인 폴로우 드로우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의 스윙은 왼쪽 무릎으로 당기고 오른쪽 무릎을 밀어 보내며, 폴로우 드로우를 똑바로 전방으로 향한다. 무릎을 밀어보냄으로써 손으로만 치는 것을 방지하고 왼쪽으로 튕기게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 후크 볼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볼에다가 가서 클럽을 짧게 잡는다. 업라이트한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밀어보내고 폴로우 드로우는 똑바로 전방으로.

무릎을 써서 하프 샷

볼을 정확히 잡으려면 하프 샷을 하는 기분으로 하면 된다. 스윙을 크게 하면 몸이 움직여 저스트 미트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용하는 클럽은 좀 커야 한다. 스윙을 작게 한 만큼 큰 클럽을 써야만 하는 것이다.

발끝이 올라가는 사면에서의 샷은 무릎의 밀어보내기가 포인트이다. 평지라면 볼이 오른쪽으로 나와 버릴 것으로 여겨질 만큼 무릎을 한껏 크게 쓰게 좋다. ●